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4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6. 일제시대의 면방직업

6.1 면화증산책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다음해 2월 일본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히로부미 초대 통감이 정치, 외교, 치안, 경제 등 모든 부서에서 제2인자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실력자로서 실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드디어 1910년 8월 강압적으로 한일합방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완전히 조선을 강점하자 통감부 대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데라우찌 총독은 곧바로 토지조사령 및 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하고, 우리의 토지를 식민지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한편 1912년 3월에는 본격적인 식민정책의 하나로 이른바 4대 증식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 증식정책의 기본방침은,

- ① 식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미(産米)증산계획
- ② 공업원료(방적 또는 군수용)를 확보하기 위한 면작(綿作)증산계획
- ③ 외자확보를 위한 수출생산 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견(産繭)증수계획
- ④ 육류와 제초원료 조달을 위한 축우(畜牛)증식계획 등

이며, 일제가 식민지 경제 수탈정책을 36년간 큰 변동없이 계속 시행한 기본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일본의 면방적공업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1867년에 면방적공장을 창업한 이래,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1893년부터 우리나라에 면사를 수출하기 시작하였

으며, 1894년에는 면사 수출세의 철폐와 청일전쟁의 승리로 중국시장에서의 일본의 권익이 크게 늘어 면사수출이 급증하였다. 1905년 노일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방적시설이 136만추로 급증하였다.

<표 9> 일본 방기 추수 및 면사 생산량

연 도	방 기(추)				면사 생산량(곤)
	드로슬	링	물	합 계	
1867	1,800	-	1,824	3,624	-
1869	1,800	-	3,824	5,624	-
1880	2,248	720	9,824	12,792	-
1885	2,248	5,892	71,124	79,264	-
1890	2,248	232,504	123,432	358,184	108,374
1895	1,800	604,218	70,642	677,108	383,565
1900	-	1,258,078	101,244	1,361,122	647,484
1905	-	1,304,786	83,060	1,387,846	905,536
1910	-	1,948,850	56,118	2,004,968	1,134,780
1915	-	2,724,452	48,530	2,772,982	1,720,264
1920	-	3,637,310	52,330	3,689,640	1,816,976
1925	-	5,001,228	25,620	5,026,848	2,436,783
1930	-	6,906,372	36,334	6,942,706	2,524,699
1935	-	9,703,980	35,320	9,739,300	3,560,832
1940	-	11,443,000	9,360	11,452,360	2,451,406
1945	-	-	-	2,184,122	165,558

※1938	-	12,540,916	9,240	12,550,156	3,268,285

이와 같은 국력의 급상승세를 타고 1902년 유사 이래 최초로 미쓰이물산이 중국 상해의 현지공장을 매수하여 중국의 방적공장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에 200만추를 돌파한 일본 면방적공업은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의 일원으로 호황을 충분히 누리다가 대전 후에 밀어닥친 세계 대공황(1929년)으로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변동에 따르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1918년에 300만추, 1922년에 400만추, 1925년에 500만추, 1928년에 600만추를 돌파하였으며, 마침내 193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의 79년간 일본 방적역사중 최고기록인 1,255만추를 기록하면서 이미 1933년에는 영국의 면포수출량을 웃돌아 세계 제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파죽지세로 인도, 중국, 미국으로부터 원면을 수입하였으나 항상 이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을 위하여도 확실한 수출시장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1876년 병자한일조약 이래 1910년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 합방, 1931년의 중국 침략으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패전으로 막을 내릴때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들의 원면 공급기지로, 그들의 생산 면제품의 수출시장으로, 세계대전을 위한 병참기지로 식민정책을 펴 나갔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은 합방전인 1904년에 이 땅에서 미(美)육지면 시험재배에 성공하자 곧 면화재배협회를 조직하고 증산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그네들의 뜻대로 합방이 되자,

- 면화 장려 제1기 6개년 계획(1912~1917년)

· 면화 장려 제2기 10개년 계획(1919~1928년)

· 면화 장려 제3기 10개년 계획(1933~1942년)

을 수립 추진하였다.

일본의 면방산업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의 수출이 영국,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수출산업으로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그간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동양의 면제품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서두로 하여 한반도의 강점에 뒤이은 중국대륙 및 동남아 침략의 야욕을 위한 전쟁을 도발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소위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에 따라 1933년부터 면화증산 제3기 10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식민지 통치기간에 시종일관 면화 재배사업을 중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제의 면작 강요는 극심하여 초기에는 “무단정치(武斷政治)”, “헌병경찰(憲兵警察)제도”로 공포 분위기 및 폭력성으로 통치하면서 면작을 하지 않는 농가의 작물에 대하여는 관현을 동원하여 밭로 밟아버려 면작 전환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국제 시세보다도 싼 가격으로 실면을 수매하였으므로, 이에 농민들이 응하지 않자 군, 면 직원들을 동원하여 농가를 수색하고 재래식 조면기(씨아)를 모조리 파괴하여 농민의 자가소비를 방해하면서 면화조합을 통해 공동판매와 강제수매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표 10> 및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 합방 당시의 육지면 재배상황과 생산실적을 보면 재배면적 1,268.1정보, 생산량 668.151근이었는데, 3차 계획의 말기에 해당하는 1942년 말의 경우 재배면적 253,000정보, 생산량 210,279,107근에 달하였으니, 1910년과 비교하면 약 30년만에 재배면적은 200배, 생산량은 300배에 달하였다. 우리가 필요하여, 우리 농민이 원해

서 한 일이 아니었음을 감안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농민이 얼마나 많은 탄압과 착취를 당했었을까를 짐작해 보게 된다.

<표 10> 일제하 면화 생산실적 추이

(단위 : 斤)

계 획	연 도	육 지 면	재 래 면	합 계
	1910	668,151	20,410,685	21,078,836
	1911	2,737,050	23,970,126	26,707,176
제 1 기 계 획	1912	7,216,133	27,345,803	34,561,936
	1913	13,445,278	26,033,763	39,479,041
	1914	17,470,452	22,001,015	39,471,467
	1915	28,668,371	19,118,228	47,786,599
	1916	31,331,414	16,239,464	47,570,878
	1917	54,553,665	17,701,476	72,255,141
	1918	60,680,920	17,223,540	77,904,460
제 2 기 계 획	1919	86,024,602	11,334,375	97,358,977
	1920	88,461,396	26,256,211	114,717,607
	1921	67,857,571	27,588,550	95,446,121
	1922	88,778,383	29,929,730	118,708,113
	1923	96,826,736	30,771,272	127,598,008
	1924	106,926,927	39,928,208	137,855,135
	1925	101,225,045	38,959,337	140,184,382
	1926	118,264,570	43,819,705	162,084,275
	1927	107,717,711	44,315,403	152,033,114

	1928	121,771,181	49,095,978	170,867,159
	1929	113,522,481	44,716,099	158,238,580
	1930	127,329,208	41,441,462	168,770,670
	1931	78,721,846	37,191,440	115,913,286
	1932	111,909,164	42,368,593	154,277,757
제 3 기 계 획	1933	114,313,478	45,102,096	159,415,574
	1934	120,773,889	34,261,185	155,035,074
	1935	169,948,818	43,800,149	213,748,967
	1936	89,392,474	47,982,738	137,375,212
	1937	200,420,292	39,868,172	240,288,464
	1938	180,083,198	30,287,023	210,370,221
	1939	191,462,497	18,873,627	210,336,124
	1940	180,222,540	6,618,018	186,840,558
	1941	199,620,232	4,607,436	204,227,668
	1942	210,279,107	3,773,743	214,052,850
	1943	318,899,485	5,296,861	324,196,346
	1944	246,980,021	2,853,616	249,833,637

<표 11> 일제하 면화 재배면적 추이

(단위 : □)

계 획	연 도	육 지 면	재 래 면	합 계
	1910	1,268.1	58,892.0	60,160.1
	1911	3,042.9	58,713.9	61,756.1
제	1912	7,313.4	57,252.9	64,566.3

1 기 계 획	1913	15,822.4	56,187.8	72,010.2
	1914	23,964.5	51,047.5	75,012.0
	1915	34,715.9	43,705.1	78,421.0
	1916	54,179.1	36,940.6	91,119.7
	1917	72,194.5	36,301.3	108,495.8
	1918	94,321.2	36,097.6	130,418.8
제 2 기 계 획	1919	109,136.2	36,300.9	145,437.1
	1920	106,697.4	39,709.0	146,406.4
	1921	104,940.7	42,796.8	147,737.5
	1922	104,025.5	47,056.8	151,082.3
	1923	109,660.0	49,219.3	158,879.3
	1924	117,526.2	52,911.5	170,437.7
	1925	138,843.7	59,003.8	197,847.5
	1926	150,726.6	65,183.3	215,909.9
	1927	137,964.1	67,115.4	205,079.5
	1928	137,663.1	67,714.2	205,377.3
	1929	128,894.7	62,325.4	186,220.1
	1930	132,458.8	60,414.9	192,873.7
	1931	131,108.9	61,436.5	192,545.4

면화생산량이 해마다 급격히 격증함에 따라, 기로계 의하면 1930년에 782개 공동판매소가 있었는데 이들 군농회 공동판매소가 앞장서서 면화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으로 수탈하여 일본인 조면업자 및 방적업자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여기에 검사소마저 가세하여 농민을 괴롭혔다고 한다.

면화의 1차 가공 기능을 담당하는 조면공장은 T가 들어 있는 실면을 수집하여 씨를 빼내면서 품등별로 구분하여 일정 중량으로 압축, 하조(포장)하여 일본으로 출하하였는데, 1916년에는 전국 조면공장수가 21개 공장이 있었으며, 이중 한국인 공장은 불과 2개 뿐이었다.

<표 12> 면방직공정의 실태(1916년말 현재)

업종		공장수	자본금(円)	종업원수(명)	동력		생산액(円)
					기관력	마력	
면직업	일본인	15	99,750	2,087	2	4	117,539
	한국인	68	221,390	1,222	3	9	511,975
	계	83	321,140	3,309	5	13	629,514
제면업	일본인	19	6,752,229	2,247	23	688	6,073,075
	한국인	2	15,000	38	2	8	100,098
	계	21	6,767,229	2,285	25	696	6,173,173

<표 12>를 보면 제면(製綿)과 조면(繰綿)을 하나로 묶어 집계하고 있는데, 조선방, 경성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면업관계로는 조면업에 대한 투자뿐이었으며, 일본인의 조면공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종업원수, 동력에 있어서도 한국인 공장보다도 훨씬 커서 생산액이 약 60배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면화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일본인 면업자 면화매수 지정구역 일람(1930년 현재)

도 별	면화공판소	지정매수인
경 기	40	남북면업회사
충 북	70	남북면업회사
충 남	73	남북면업회사, 조선방적회사
전 북	45	남북면업회사, 조선방적회사
전 남	160	남북면업회사, 조선면화회사, 전남면화회사 외 2사
경 북	116	조선방적회사
경 남	150	조선방적회사, 마산조면공장
황 해	63	조선방적회사
호 남	24	조선방적회사 외 3사
호 북	10	조선방적회사
강 원	31	조선방적회사
합 계	782	

1913년에는 조선면업의 목포 조면공장과 이리 조면공장이, 1918년에는 조선면화주식회사가, 1919년에는 남북면업의 목포 조면공장 등이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표 13>을 보면 1930년에 와서는 면화공판소가 782개소에 달하였으며, 조선총독부가 일본면업자를 지명매수인으로 선정하여 독점권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일본에서도 거대한 조면 자본가들이었다.

<표 14>를 보면 제2차대전의 말기인 1940년대 전반에 일본의 육·해군이 한국산 면화의 약 40%를 군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한국산 면화 사용내용

연 도	공판량 매상수량	사 용 내 용				
		일본 육군	일본 해군	일본 반출	로프, 기타 잡용품	공장용
1940	2,840,000	482,294	-	-	-	-
1941	4,500,000	720,000	270,000	2,052,000	88,300	1,376,826
1942	3,700,000	1,461,683	140,000	200,000	390,000	1,317,971
1943	4,715,000	1,120,000	600,000	800,000	60,000	1,736,000